

봄의여신이 손짓하는 고장 문경으로 떠나자

관련기사 3면

지저귀는 새들의 노래소리가 정겹기만 하다.
 한갓지게 가고픈 문경으로 봄 바람 가슴에 안고 떠나보자.
 그곳은 마음의 안식처고 포근한 어머니의 품이다.
 초록의 생명을 느껴보자.
 문경은 아름답다.
 풍부한 문화 유산, 아름다운 자연 경관,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자랑한다.
 여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문경에서 방문하기 가장 좋은 장소는 너무나 많다.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

고령 2024

대가야축제

세계 유산, 고령 지산동 고분군!

기간
2024.03.29일 - 31일 <3일간>

시간
10:00 ~ 2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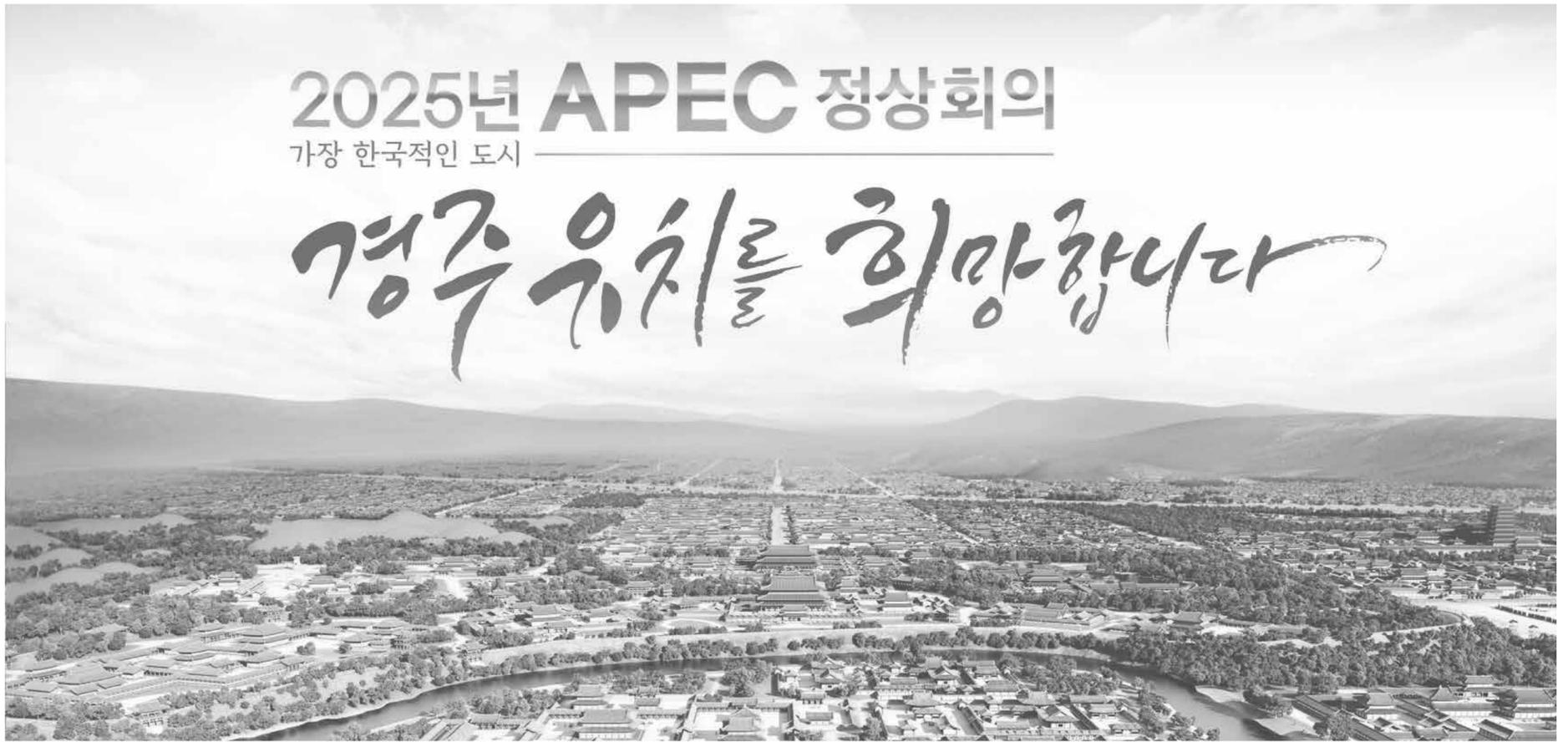
장소
지산동고분군 및 대가야박물관
대가야읍 일원

주최 고령군

주관 사)고령군관광협의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북도

문의 사)고령군관광협의회 054)950-6424 www.festdgy.com



APEC 정상회의 유치...경주경제 대도약 발판 삼는다

미래 100년 위한 APEC 반드시 유치...신라 천년 화랑정신으로 뚝뚝 뚝뚝 개최도시선정 깃발 꽂자

글쓰는 순서

1. 총괄
2. APEC 정상회의 유치 경주뿐
3. 개최지 결정, 정치 잣대 '안돼'
4. 세계적 관광은 경주로 통한다
5. 경제 파급 효과...경주가 짚는다
6. 맺는말

경주시가 APEC 정상회의 개최지 선정으로 경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삼는다.

'2025 APEC 정상회의'를 경주에 유치해야 유는 바로 지역경제 파급효과다.

경주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국제관광도시다. 신라천년의 유구한 역사가 도도히 흐르는 부흥의 땅이다.

지금 경주는 APEC 정상회의 유치에 모든것을 내 걸었다. APEC 정상회의 유치가 경주의 희망이기 때문이다.

APEC 정상회의 개최지 선정도시에 최대 강

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 △화백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국제회의의 역량이 검증된 준비된 국제회의도시 △보문관광단지 반경 1.5km 내 풍부한 숙박시설 △회의 인프라를 갖춰 세계 주요 정상들의 경호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주가 보유한 숙박 현황은 총 1846곳 1만 6838실이다.

정상회의가 열릴 보문단지 반경 3km 내 103곳 4463실이 집적하고 있다.

이는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 당시 정부대표단 수요 대비 157%에 해당하는 충분한 객실을 보유하고 있다.

이뿐 아니다.

울산·포항·구미 등 인접 산업도시와 함께 다양한 산업시찰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무엇보다 경주가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라는 점을 통해 APEC이 지향하는 포용적 성장과 국정목표인 지방시대 균형발전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최대 강점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 행사 '2025 APEC 정상회의'를 경주가 유치하면 △세계적인 관광브랜드 도시 탈바꿈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마이스 중심 국제회의도시 도약 △국제협력 및 교류 증진 등 경주발전이 10년은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파급효과는 막강하다.

정상회의를 유치하면 생산유발효과 972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4654억원, 취업유발효과 7908명여가 기대된다.

미래 100년을 위한 이 행사를 반드시 유치하면 신라천년역사에 길이 남는다.

이제 남은 것은 2025 APEC 경주 개최도시 선정뿐이다.

경주시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2025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 유치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출사표를 던진 지자체는 △경주 △부산 △인천 △제주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절대 물러설 수 없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전투라고 했다.

때문에 경주시는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에 총공세를 퍼붓고 있다.

유치전에 뛰어든 지자체들이 저마다 명분과 당위성을 내세우며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무역을 투자 자유화를 통한 경제발전과 번영을 목표로 하는 APEC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지속가능하고 균형있는 성장을 미래 비전으로 삼고 있다.

2020년 말레이시아 정상회의에서는 무역과 투자 자유화에 중점을 둔 '보고로 선언'을 완료하고 '푸트라자야비전 2040'을 채택했다.

이 미래 비전의 핵심요소로 바로 포용적 지속 가능한 성장이다.

경주시는 현재 유치 의사를 피력한 도시 가운

데 유일한 기초자치단체다.

APEC이 지향하는 포용적 성장과 정부의 지방시대 균형발전 약속 실현을 위해서라도 소규모 지방도시인 경주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해야 할 충분한 명분과 실익이 있다.

포용적 성장을 가장 간명하게 정의하면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는 성장'이라 할 수 있다.

국내적 측면에서 보면 지역균형발전이다.

현 정부도 출범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자는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삼고 공간적 정의 구현을 내세운 바 있다.

이제까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수도권 과밀화라 할 수 있다.

이제는 저출산, 고령화와 맞물려 지방에서도 대도시와 중소도시간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는 실정이다.

개최된 정상회의 중 중소규모 지방도시인 멕시코 로스카보스(2002), 러시아 블라디보스톡(2012), 인도네시아 발리(2013), 베트남 다낭(2017) 등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사례를 보면

경주 유치의 당위성은 더욱 설득력을 가진다.

정상회의 당시 인구 7만에 불과한 관광도시였던 멕시코 로스카보스는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광 인프라 개발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졌다.

2020년 기준 인구 34만의 국제적 관광도시로 변모하는 계기가 됐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APEC이 지향하는 포용적 성장과 지방시대 균형발전의 가치 실현에 딱 들어맞는 도시가 바로 경주"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완성된 광역도시보다는 국제회의 인프라와 역량, 발전가능성을 두루 갖춘 지방도시인 경주에서 개최하는 것이 APEC의 가치와 현 시대정신에 가장 부합하다"라고 강조했다.

고 밝혔다.

APEC 정상회의는 지방도시에서 개최하는 것이 APEC의 관례이다.

국제무대에서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관광도시나 국가정책의 전초기지를 개최도시로 선정함으로써 지방도시를 외부에 크게 알리려는 전략적 목적을 갖고 있다.

김성용 기자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보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 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www.dgy.co.kr 전자우편 dgynews@daum.net

발행인 김영숙 | 편집인 김성용 | 편집국장 김현석 | 부사장 조여은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표 053-257-9000 경영지원국 053-257-5000 광고국 053-257-0800 문체부 053-253-0065

부시장 053-254-0600 기획조정실 053-257-0600 시화부 053-253-0060 지방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임원실 053-25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 부 5000원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북공공배달업 먹개비

시민과 동행하는 영천시의회

영천시의회는 소상공인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어려운 경기속에서 공공배달업 먹개비 이용은 영천시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먹개비 앱을 다운로드하여 지역 상점을 응원해 주세요.
영천시의회는 늘 여러분의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의원 배수예


의원 김흥문


의원 이영기


의원 이영우


의원 김종욱


의원 김선태


윤리특별위원장 권기환


산업건설위원장 이갑훈


행정문화복지위원장 김상호


인화운영위원장 박주하


부위원장 우애자


의정 하기태



4월27일~5월6일까지 문경새재
오픈세트장서 문경찰사발축제
찰사발 역사 기원 알 수 있다...

봄이 전령 흥매화가 웃는다.
버들강아지가 춤추고 봄의여신이 미소짓는다.

꽃의 여신 플로라도 나폴데는 봄바람에 눈인사를 보낸다.
생명의 입태다.

지저귀는 새들의 노래소리가 정경기만하다.
한갓지게 가고픈 문경으로 봄바람 가슴에 안고 떠나보자.

그곳은 마음의 안식처고 포근한 어머니의 품이다.
초록의 생명을 느껴보자.

문경은 아름답다.
풍부한 문화 유산, 아름다운 자연 경관,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자랑한다.

여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문경에서 방문하기 가장 좋은 장소는 너무나 많다.

유서 깊은 사원부터 경치 좋은 등산로, 맛있는 현지 요리가 이르기까지 한국의 이 매력적인 지역에는 모두를 위한 무언가가 있다.

이런 지역을 소개하는 책이 나왔다. 이곳에 머무는 동안 현지 차와 한국 전통 간식을 꼭 맛보면 더할 나위 없다. 문경은 예부터 '점촌(店村)'이라 불렀다. '도자기 마을'이다.

현재까지도 전통 방식을 통해 '달항아리'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백자를 만들며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다기(茶器)인 찻사발, 식기 등을 만들어 왔다. 오는 4월 27일~5월6일까지 문경새재 오픈세트장에서 '문경찰사발축제'가 열린다. 도자기에 관심 있는 여행자라면 좋은 기회다.

찰사발은 한일 수교 이후 일본에서의 대량 주문과 함께 1990년대 이후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서시중에 생산과 유통, 공급이 많아졌다. 당시 문경은 도자기를 굽기 좋은 질 좋은 토양과 풍부한 맑은 물을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탓에 품질 좋은 도자기를 만들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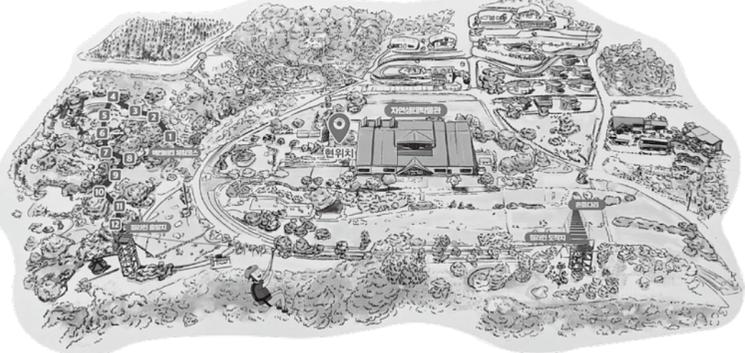
게다가 한양으로 가는 중요 길목에 있던 터라, 문경의 도자기는 빠르게 전국 각지로 퍼져 나가게 됐다.

올해로 26회째를 맞은 문경찰사발축제에서는 찻사발을 만드는 과정부터 활용하는 방법까지 모두 관람할 수 있다. 전통 방식인 장작으로 불을 지피는 망명이가마도 체험해 볼 수 있다.

찰사발의 역사와 기원을 알 수 있는 기획 전시도 열린다. 행사로는 외국과의 도자 교류전, 전국 찻사발 공모대전, 도예 명장 특별전, 문경 도자기 기획전 등이 있다.

올해는 기존 관람에서 벗어나 차만을 담던 찻사발에 커피와 밥까지 담아보는 새로운 도전과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한 대중화된 가성비 높은 찻사발과 식기 등이 더 많이 출품될 예정이다.

행사가 열리는 문경새재오픈세트장은 현재도 한국 사극의 대부분을 촬영하는 촬영장으로 지



아 있다.
1~3관문까지의 문경새재 휴길은 맨발로 걸을 수 있어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힐링 관광지로 제격이다. 해발 1000m가 넘는 주흘산과 조령산 사이를 잇는 까마득한 고갯길.

다른 길이 있었음에도 '함격하는 길'이라는 소문에 붓짐에 짙은 한 죽을 달고 선비들은 고된 문경새재를 경건하게 넘어갔다. 이미 시작된 과거 시험의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는 것처럼 말이다.

문경시에서 차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문경새재 도립공원은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꼭 방문해야 할 곳이다.

이 공원은 한국 전나무와 같은 희귀종을 포함, 놀랍도록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다. 방문객들은 쉬운 산책에서 도전적인 트레킹에 이르기까지 공원의 많은 하이킹 코스를 탐험할 수 있다.

공원의 하이라이트는 수세기 동안 여행자들이 사용했던 역사적인 관문인 새재 고개다.

여기에서 방문객들은 주변 산과 강 계곡의 멋진 전망을 즐길 수 있다. 좀 더 여유로운 야외 활동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문경산 자연휴양림은 도시에서 벗어나 고요한 휴식을 제공한다.

숲에는 다양한 등산로와 피크닉 장소, 캠핑장이 있어 가족 및 단체 여행객에게 인기다.

방문객들은 낚시, 자전거 타기, 조류 관찰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도 있다.

문경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맛보려면 문경전통다원축제에 꼭 가보자.

이 연례 행사는 100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가는 이 지역의 유명한 도자기 산업을 기념한다. 방문객들은 한국 전통 도자기의 역사에 대해 배우고, 숙련된 장인의 시연을 관람한다. 직접 찧고

를 만들어 볼 수도 있다. 이곳에 머무는 동안 현지 차와 한국 전통 간식을 꼭 맛보면 더할 나위 없다. 문경은 예부터 '점촌(店村)'이라 불렀다. '도자기 마을'이다.

현재까지도 전통 방식을 통해 '달항아리'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백자를 만들며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다기(茶器)인 찻사발, 식기 등을 만들어 왔다. 오는 4월 27일~5월6일까지 문경새재 오픈세트장에서 '문경찰사발축제'가 열린다. 도자기에 관심 있는 여행자라면 좋은 기회다.

찰사발은 한일 수교 이후 일본에서의 대량 주문과 함께 1990년대 이후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서시중에 생산과 유통, 공급이 많아졌다. 당시 문경은 도자기를 굽기 좋은 질 좋은 토양과 풍부한 맑은 물을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탓에 품질 좋은 도자기를 만들 수 있었다.

게다가 한양으로 가는 중요 길목에 있던 터라, 문경의 도자기는 빠르게 전국 각지로 퍼져 나가게 됐다.

올해로 26회째를 맞은 문경찰사발축제에서는 찻사발을 만드는 과정부터 활용하는 방법까지 모두 관람할 수 있다. 전통 방식인 장작으로 불을 지피는 망명이가마도 체험해 볼 수 있다.

찰사발의 역사와 기원을 알 수 있는 기획 전시도 열린다. 행사로는 외국과의 도자 교류전, 전국 찻사발 공모대전, 도예 명장 특별전, 문경 도자기 기획전 등이 있다.

올해는 기존 관람에서 벗어나 차만을 담던 찻사발에 커피와 밥까지 담아보는 새로운 도전과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한 대중화된 가성비 높은 찻사발과 식기 등이 더 많이 출품될 예정이다.

행사가 열리는 문경새재오픈세트장은 현재도 한국 사극의 대부분을 촬영하는 촬영장으로 지

난 2000년 태조 왕건 촬영장으로 준공됐다.
이후 문경시 지원으로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변신해 광화문, 교태전, 동궁, 서운관, 권내각사, 양반집 등을 추가 건립하여 기존 초가집과 기와 집을 합해 130동의 세트 건물로 구성된 모습을 갖췄다.

가옥마다 지역 도자기 장인들이 자신들의 작품을 전시, 홍보, 판매하며 각종 체험 행사와 이벤트를 연다. 조선시대를 연상하게 만든 드라마 촬영장 내에서 조선 선비의 정취와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도자기와 찻사발, 식기 등을 직접 만지고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재미도 느껴 볼 수 있다.

■도자기와 오미자의 고향, 문경

문경대로 2416에 '문경 도자기박물관'이 보인다. 이곳은 문경 도자기를 알리기 위해 설립된 곳이다. 토기, 청자, 백자, 근현대 도자기를 전시·판매하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전시실은 공예관, 다실 체험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1세기부터 19세기 사이에 제작된 청자, 분청사기, 백자를 감상할 수 있고 현대 문경 도예가들의 작품도 살펴볼 수 있다.

전통 가마인 망명이가마, 문경에서 제작된 분청사기와 백자 사발, 대접, 접시, 종지, 병, 제기 등이 있다. 별관에는 '문경 도자기 홍보판매장'도 운영 중이다.

전통 방식의 장작가마인 망명이가마를 고수하고 있는 지역 35인 도공들의 모임인 '문경 도자기협동조합' 조합원들의 작품을 상설로 팔고 있다. 근처에는 오미자와인도 유명한 '오미나'도 들러볼 만하다.

지역 오미자를 원료로 와인 포함 19종의 술을 제조하는 와이너리로, 와인제조 과정을 볼 수 있는 발효·증류·숙성·영양실과 와인 시음판매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미자 재배과정과 와인 제조 공정 및 시음을 경험할 수 있으며 와인도 구입할 수 있다. 위스키 마스터 블렌더이자 양조장인으로 알려진 이종기 사장이 생산 개발한 오미로제는 6년이 걸리는 제조공정과 정성만큼 그 품질이 뛰어나 한미 정상회담 등 국가의 다양한 행사에서 공식 만찬주로 사용되기도 했다.

인근에는 9대를 이어 3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도예 명가, 국가무형문화재 김정옥 사기장이 운영 중인 '영남요', '문경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관'으로 불리는 곳이 있다.

영남요는 국가무형문화재 7대 백산 김정옥 사기장 보유자, 8대 김경식 사기장 전승 교육사, 9대 김지훈 사기장 이수자를 낳은 도자 가문이다. 오랜 전통과 장인정신으로 조선백자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는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영남요 1대 김경정은 영조 시대에 활동한 사기장으로서 국가무형문화재 사기장 전수관에 전시되어 있는 발 물레를 처음 제작하여 사용한 인물이다.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 도자기 제작 기법을 계승 전수하고 있는 영남요를 둘러보는 것을 추천한다. 문경은천 지역으로 이동하면, 대한민국도예 명인 '미산 김선식 사기장'이 운영하는 '관음요 도자기 전시판매장'도 둘러볼 만한 곳이다.

경북도 최고 장인인 그는 현재 문경 도자기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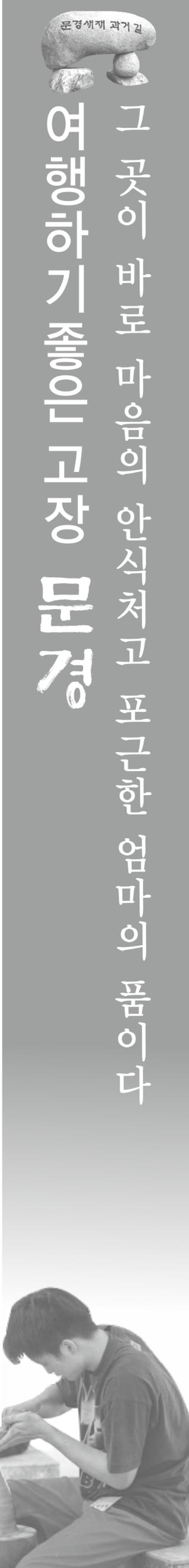
미산은 도자기와 찻사발의 대중화는 물론 가성비 좋은 제품을 대량으로 출시, 누구나 찻사발을 쉽게 접하고 쓸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뛰고 있는 인물이다.

찰사발에 커피를 접목하는 고민도 하고 있다.

중대형 한식당에는 전통 장작가마에서 구운 식기를 50~70% 이상 인화된 가격에 구입, 사용할 수 있도록 대량 생산방식도 구상하고 있다.

문경은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유산, 그리고 체험이 가득한 지역이다. 여행하기 좋은 도시가 바로 문경이다.

조미경 기자





경주시,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보조금 지원

경주시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감소를 위해 가정용 소형감량기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상으로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며 선착순이다. 보조금은 가구당 1대에 한해 구입 금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30만원까지다.

지원 대상은 모집 공고일(3월 13일) 이후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를 구입한 경주시민이다. 대상 제품은 K마크, 환경표지, 단체표준, Q마크 등 품질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하수도법에 근거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제외다.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으로 도시 매력 알린다

세계국가유산산업전 최대 규모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화제 만발

경주시가 지역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긴다.

시는 올해 세 세계국가유산산업전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3개) △세계유산 홍보지원 사업(3개)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프로그램(8개) 등 15개 사업에 2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참가자들에게 추억과 감동을 선사한다.

8화째를 맞이하는 2024 세계국가유산산업전은 국내 유일의 문화유산 전문 전시회로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함께 만들어 나가는 국가유산의 내일'이라는 주제로 펼쳐진다.

국가유산 보존, 안전·방재, 수리·복원, 활용, 매장유산, 디지털 헤리티지 등의 6개 분야에 참가업체 100곳, 300개 부스가 설치될 예정이다.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은 세계유산의 가치를 보존·전승·확산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옥산서원의 '의관정비, 선비의 갓과 양동마' '양좌골의 전통을 만나자'를 비롯해 경주역사유적지구(월성-대릉원 일원) 활용 프로그램인 신나(新羅)는 history난장, 신라정원 타임머신 투

어는 마을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할 수 있는 특별한 전통 문화 체험의 기회가 될 것이다.

세계유산 홍보지원사업도 추진한다. 경주세계유산 알리기 위해 인플루언서, 액션드론 촬영기법을 활용한 홍보콘텐츠를 제작하고 '불국사와 석굴암 Healer(지유자)적 가치'라는 주제로 SNS와 국내의 전시박람회 참가를 병행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한다.

우리고장의 향교, 서원, 산사, 고택, 종갓집 등의 장소로 구분해 국가유산을 활용한 품격 높은 문화관광 콘텐츠도 선보인다.

읍성을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체험인 '읍성 생생나들이', 서약 생생페스타, 도봉스테이를 진행하는 '화랑이 깃든 서약마을' 프로그램은 눈여겨볼 만하다.

경주향교의 '천년고도, 향교사랑(전통과 미래의 러브스토리)'와 운곡서원에서 펼쳐지는 '구름계곡, 물따라 바람따라'는 문화 공간이자 인문정신과 청소년 인성을 함양하는 공간으로 프로그램도 이어간다.

9년째 시행되는 야간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인 '문화유산야행'은 경주의 신화와 문화유산을 연계해 7야(夜)를 주제로 9개의 이색적인 이벤트를 선보인다.

고택과 종갓집에서 펼쳐지는 '경주 최부자! 공간을 열다'와 '회재가 보내온 500년 종갓집(독락당) 초대장은 고택·종갓집의 의·식·주, 의례



등 전통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며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전통 산사의 문화유산적 가치와 의미를 체험·공연·답사 등의 형태로 풀어낸 '칠불암 5감 힐링 체험'은 3년간 우수 사업으로 명예의

전당에 등재됐을 뿐만 아니라 2025년 국가유산 활용 대표 브랜드 사업에 예비 선정된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문화유산적 가치와 의미를 체험·공연·답사 등의 형태로 풀어내 인기몰이에 나선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만이 가진 고유한 문화유산을 활용해 아름답고 행복한 좋은 추억을 많이 담아 가시길 바란다"며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APEC 정상회의의 경주유치 결의대회

(사)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

(사)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는 지난 11일, 12일 양일간 서라벌문화회관에서 'APEC 정상회의의 경주유치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번 APEC 정상회의의 경주유치 결의대회는 (사)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 노인일자리 참여자 9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과 주의사항, 노인학대 신고방법과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며 함께 진행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APEC 정상회의에 대한 의지와 준비된 모습을 보이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주에서 정상

회의가 열리는 것이 당연하다며 의지를 다졌다.

구승회 (사)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 회장은 "경주시민의 최대의 관심사인 APEC 정상회의의 경주유치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는데 조금이나마 기여를 한 것 같아서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유치 활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돕겠다"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이 안전교육 내용을 토대로 활기차고 건강하게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하였으면 좋겠다"며 "오늘 어르신들의 응원에 힘입어 2025 APEC 정상회의가 경주에 반드시 유치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일상돌봄서비스 이용자 85명 모집

경주시가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자를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모집한다.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만

19~64세)과 질병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만 13~39세)가 구에 기본 및 특화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인원은 85명이며, 서비스 선정 시 6개월간 신청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윤용찬 기자/사진 경주시제공

박목월 미발표작, 동리목월문학관에서 세상 밖으로

박목월 유작품발간위와 동리목월문학관서 특별전 추진

경주 출신의 대한민국 대표 서정시인 박목월(1915~1978)의 미발표시 166편이 공개됐다.

13일 경주시에 따르면 박목월유작품발간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목월의 미공개 시를 공개했다.

미공개 시는 박목월 시인의 장남인 박동규(84) 서울대 명예교수의 자택에서 발견된 62권의 노트와 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이 소장하고 있는 18권의 노트 등 80권의 노트 속에 잠들어 있었다.

박목월유작품발간위원회는 수록된 시 대부분이 이제껏 어디에서도 발표된 적이 없는 작품임을 확인하고, 노트의 복원, 분류 및 분석 작업을 진행해 왔다.

유품 노트 작품 중 완전한 시 형태를 갖춘 창작물은 총 318편으로, 그 중 문학적 완성도가 높



은 작품 166편을 선정해 세상에 공개했다.

박목월의 장남인 박동규(84)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때껏 숨어있던 시들을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45년이 지나서야 세상 밖에 나오게 됐다"며 "아버님의 시가 적힌 노트는 어머니가 보자기에 싸서 장롱에 보관해 온 것으로 전장 때는 천장 속에 숨겨 놓으셨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작품들은 생활과 신앙, 동심, 자연과 풍경, 가족과 사랑 등을 주제로 다루고 있고, 역사적 격동기인 해방과 6·25 전쟁을 거치며 조국과 미래를 노래한 작품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또 형식적인 면에서는 그전까지 잘 볼 수 없었던 산문체 형식의 장시가 두드러진다. 대표 작품으로는 전쟁고아를 그린 '수신보이', 가족의 사랑을 다룬 '어머님, 당신의 눈물어린 눈동자에, 연작시 '訪問(방문)' 등이 있다.

경주시는 박목월유작품발간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박목월의 미공개 작품을 동리목월문학관에서 특별 전시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의 동리목월문학관에서 문학사적인 가치가 높은 박목월의 숨은 작품들이 대거 발견된 점에 대해 기쁜 마음을 금치 못했다"며, "경주시는 박목월유작품발간위원회와 함께 강연회를 정례화하고 박목월 시를 현대 미디어와 접목하는 등 동리목월문학관의 콘텐츠 다양화와 박목월 시문학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A large promotional banner for '영천9경 여가생활' (Yeongcheon 9 Views Leisure Life) featuring various scenic spots like 은해사, 임고서원, 보현산천문대, 치산관광지, 보현산댐짚와이어,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 영천댐벚꽃백리길, 영천한의마을, and 별별미술마을. The banner includes the text '영천9경 여가생활 9가지의 즐거움 영천시'.

영덕 청송
영양 청도
울릉



윤경희 청송군수는 2024년 3월 14일(목) 지역내 주요 사업장과 재난 취약지구 현장 등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14일 오후 영양군청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장구메기습지 생태공원 공간조성 용역보고회'에 참석한다.



청도경찰서, 2024년 치안 종합성과평가 보고회 개최

청도경찰서는 12일 오전 회의실에서 경찰서장을 비롯한 각 과, 계장 및 파출소장이 참석해 2024년 치안종합성과평가 보고회를 개최했다.

박성곤 청도군의회 의원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청도군의회 박성곤 의원이 지난 12일 상주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군자치구 의회 의정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청송군, 재선총병 피해 예방에 총력

청송군은 지난 4일부터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 운영을 시작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저지를 위해 관내에 유입·반출되는 모든 소나무류의 검문·확인 등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영덕고 축구팀, 전국체육대회 선발전 '우승'

(경북대표)

명문 포철고에 역전승
경북 최강으로 자리매김

영덕고등학교 축구팀이 경북 최강 축구팀임을 입증했다.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영해생활체육공원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경북대표 선발전' 결승전에서 축구 명문 포항제철고를 꺾고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선발전 고등부는 영덕고를 비롯한 8개 고등 축구팀, 대학부는 김천대를 비롯한 9개 대학 축구팀이 출전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영덕고는 지난 9일 치러진 8강에서 신라고를 만나 9:1 대승으로 4강에 올라 예일메디테고와 접전 끝에 후반 43분 극적인 골로 1:0 승리를 거뒀다. 이어 12일 치러진 결승전에서 경북

축구의 강호 포항제철고와 자웅을 겨뤄 전반 1:0으로 지던 경기를 후반 동점골과 역전골을 연속으로 터트리며 최종 4:2으로 정상에 올랐다. 이번 대회에서 영덕고는 명실상부 경북 최강의 팀임을 입증하며 오는 10월 김해시에서 열리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축구 종목 경북 대표팀으로 선발되는 영예를 안게 됐다. 1982년 창단된 영덕고등학교 축구

부는 2017년 최호관 감독이 부임한 후 춘계 전국고등 축구대회 준우승과 같은 전국 단위의 대회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타며 국내 유수의 축구 강팀과 어깨를 겨루고 있다. 이번 대회 결승전에서 영덕고를 응원한 김광열 영덕군수는 "고장을 넘어 이제는 경상북도를 대표하게 된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성취와 함께 사명감이

라는 소중한 경험을 얻게 돼 매우 반갑고 축하하는 마음"이라며, "건강한 육체와 함께 투지와 스포츠 정신으로 마음의 근육까지 단련함으로써 미래를 이끌 자랑스러운 신세대로 성장할 것을 생각하면 뿌듯하고 자랑스럽다"고 응원했다. 한편 지난 11일 치러진 대학부 결승전에서는 김천대학교가 경일대학교를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조여은 기자



2024년 울릉의 봄은 안전부터...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

의사 집단행동 '청도군' 이상없다

봄철 산불·해빙기 대비 안전대책회의

울릉군은 해빙기 주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은 지난 11일 남한권 울릉군수 주재로 부군수, 부서장, 직속기관장, 읍면장과 봄철 산불·해빙기 대비 안전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간부회의 직후 진행된 이번 회의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월 1일 ~ 5월 15일)과 해빙기 안전점검기

간(2월 19일 ~ 4월 3일) 중점 추진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 부서별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전과 달리 적설량이 작고 기온이 급상승하는 등 자연환경변화에 따라 안전위험요소들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해동 후 이른 산행과 고로쇠채취, 봄나물철로 산을 찾는 관광객 및 주민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개인안전 홍보, 사전 안전위험요소 점검 등 안전방안을 마련했다. 봄철 지표면이 녹으면서 붕괴, 낙석사고, 도로포

트 및 지방악화에 따른 건설현장, 주택담장 등 생활 밀착 요소들에 대한 안전대책들도 논의됐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산나물채취 인명사고,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사고 등은 우리가 안전불감증에 무심코 지나친 사소한 지점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경우가 왕왕 있으므로 개인 안전이 중요성을 과할 만큼 홍보하고 해빙이 시작돼 낙석, 토사 유실, 도로침하 등의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들은 해당 부서에서 면밀하게 살펴서 소중한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윤환 기자

청도군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전국적인 의료계 공백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의대남의료재단 청도대남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비상진료체계 점검 및 응급의료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청도대남병원은 24시간 응급실 기능을 수행하면서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김하수 군수는 병원 관계자로부터 현황을 보고 받고, 연장근무에 따른 병원 인력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을 나눴다. 조여은 기자

청송군치매안심센터 '예쁜치매쉼터' 운영

정보화영덕대게보존마을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특산물 온·오프라인 판매 성과 공동체 활성화 등 전국 최고

영덕군의 정보화영덕대게보존마을이 효과적인 성과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로 정보화마을 중앙협회로부터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2001년 행정안전부에 의해 시행한 정보화마을 조성 사업은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

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자상거래 등의 시스템을 구축해 도시와 농촌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목적이다. 정보화영덕대게보존마을은 지난 2002년 5월 정보화마을로 공식 인증된 이래로 영덕군 특산물인 영덕대게, 홍게, 오징어 등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해 주민들의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체험관광과 영덕대게 박물관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영덕대게보존마을은 우수 정보화마을을 시상하는 정보화마을중앙협회 제21차 정기총회에서 전국 207개 정보화마을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상의 영예를 누리게 됐다. 이번 평가는 온·오프라인 매출액, 소득 증가율, 재구매율 등을 지표로 한 정량평가와 자체 지표를 반영한 정성평가로 이뤄졌으며,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내부교육과 공동체 활동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보였다. 조여은 기자

청송군치매안심센터는 지난달 27일 치매안심센터 교육실에서 '우리마을예쁜치매쉼터' 운영자 맞춤형교육 및 간담회를 시작했다. 3월부터 10월까지 지역주민의 치매예방·관리를 위해 치매환자 및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우리마을예쁜치매쉼터'를 운영한다. '우리마을예쁜치매쉼터'란 치매안심센터의 접근성이 취약한 8개 마을의 경로당을 지정하고, 주2회 30회기 인지기 및 건강실천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올해는 레크레이션 강사 자격을 취득한 청송읍건강지킴이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청송소방소와 연계하여 우리마을예쁜치매쉼터가 더욱더 활성화될 전망이다. 윤병문 기자

Advertisement for Korea Press Foundation. Includes text: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NO! 술잔을 비우셨다면, 운전석도 비워주세요., 국민 전석민님께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

영천 영주 봉화 고령 의성

최기문 영천시장은 14일 오전 영천향교 명륜당에서 열리는 영천향교 석전대제에 조현관으로 참석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14일 오전 영주시의회에서 열리는 제27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오후에는 시장실에서 열리는 (재)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 기탁식에 참석한다.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3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2일 개최해 이번 임시회에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박주학 의회운영위원장이 발의한 '영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들의 더 많은 수익 창출에 기여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거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수를 기존 2천㎡이내 30개 이상 밀집 구역에서 상업지역 25개, 상업 외 지역 20개 이상으로 밀집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됐다.

영천시장이 제출한 '영천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된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지원 범위가 불명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수정가결됐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위 2건의 조례안은 13일,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의결된다. 최은하 기자



봉화군 희망복지팀, 행복공작소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 펼쳐

봉화군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은 봉화군종합자원봉사센터 행복공작소와 함께 지난 12일 봉화읍에 거주하는 있는 고난도 사례관리 대상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대상가구는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가구로 고령의 나이에 낡고 비위생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날 자원봉사에는 행복공작소의 전문재능기부 봉사자 10여 명이 참여해 노후된 싱크대 교체, 도배 및 주방정화작업 등을 통해 대상가구에 위생적이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제공했다. 전상기 기자

영주시, '2024영주 소백산마라톤대회' 준비 박차

오는 15일까지 참가 신청...
먹고 즐길거리 가득한 대회
4월 7일 교통통제 '안전 최우선'

영주시가 봄기운과 함께 영주시 알리기에 머리를 맞댔다.

시는 오는 4월 7일 개최하는 '2024 영주 소백산 마라톤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2일 진행된 확대간부 및 읍면동장 연석회의에서 마라톤대회 주요현안 점검, 참가자 모집, 교통통제, 부대행사, 주차장 운영 등 대회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 박남서 영주시장은 오는 15일까지 이어지는 참가자 모집뿐만 아니라 영주의 대표 스포츠이벤트인 소백산마라톤대회 준비에 있어 각 부서별 추진사항에 맞춰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업을 강조했다.

소백산마라톤대회는 봄기운이 완연한 소백산의 수려한 경관과 소수서원, 선비촌 등 유서 깊은 문화유산 주변을 달리는 코스로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다.

특히 전국 10대 메이저대회로 성장한 만큼 높은 수준의 선수들이 대거 참가해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성공개최의 기대감이 크다.

시는 성공적으로 개최한 그간 대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통통제 협조, 관계기관 및 자원봉사자와의 사전협력 강화는 물론, 남은 기간 환경 조성, 차선도색,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등 마라톤 코스 정비에 대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마라톤대회 참가자 유치를 위해 다른 지역에서 개최되는 마라톤대회를 찾아가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수시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며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소백산 마라톤대회는 매 대회마다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먹거리 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잔치국수, 영주한우·한돈 불고기, 고구마빵,

배추전, 영주사과, 막걸리 등 풍부한 먹을거리가 마련돼 대회 참가자와 가족들에게 극찬을 받아왔다.

영주시 관계자는 "전국에서 참가하는 대규모 대회이니만큼 철저한 대회준비와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마

라톤 코스의 교통통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4 영주소백산마라톤대회는 오는 4월 7일 영주시민운동장에서 출발한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영주특산품, 기념품과 함께 푸짐한 먹거리가 제공되며, 서울과 인천·대구·부산·대전·울산 등에서 오는 참가자들을 위해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전상기 기자

영천시,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와 농식품수출 업무협약

미주시장 신유통망 확보
수출 활성화 방안 모색

영천시는 지난 12일 시청에서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회장단 일행을 접견하고 영천시 농식품 수출 활성화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후 미국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최기문 영천시장, 영천농협 성영근 조합장, 농식품가공협회 임원 등 수출업체 대표를 비롯해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이경철 회장 및 임원진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영천시 우수 농특산물의 미주 수출 확대를 위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주요 내용으로 영천 농특산물의 미국 내 매장 입점과 전략적마케팅을 통한 수출 활성화 방안 등의 업무

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는 미국 전역에서 상공업에 종사하는 150만 한국인을 대표하는 비영리 경제단체로 80개 지역의 상공회의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 산업, 문화, 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인 동포 기업들과 한국의 수출입 업체의 미국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미국의 한인 상공인을 대표하는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와 업무협약을 맺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적 교류를 통해 영천시의 우수한 농특산물의 미주 시장 판로 확대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최은하 기자

고령군, 필리핀 계절근로자 2차 입국

2차에 걸쳐 102명 입국
농촌일손부족 습통 열어

고령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난 11일 입국해 농촌 일손부족해소에 습통을 트게 됐다.

지난 1월 11일 한국에서 필리핀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불법브러커 임금착취 등의 문제로 자국 계절근로자 송출을 중단 등의 어려운 고비도 있었다.

지난 2월 29일 1차 39명에 이어 2차로 63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고령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63명이 입국한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고



용주 33농가에 근로자를 배정했다. 근로자들은 마약검사, 급여계좌 개설 후 이탕방지 교육,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무단이탈 발생시 조치사항, 인권침해 예방교육 등의 교육을 마치고 관내 참외농가에 배치되어 5개월에서 8개월간 일하게 된다.

의성군, '드론 실증도시 구축 공모사업' 업무 협약 체결

드론 활용 서비스 모델 발굴 및 지원

의성군은 지난 11일 2024 드론 실증도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기술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의성군 등 17개 지자체가 모여 착수보고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항공안전기술원 주관, 드론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드론 활용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지원하

는 사업이다. 의성군은 국비 8억원 확보라는 쾌거를 이뤘다.

세부 선정과제는 향후 대구경북통합공항 등 주요 거점시설 방호를 위한 '동향 대(對)드론 시스템 개발 및 불법 비행드론 대응 체계 실증'과 드론 특화 드론 레저산업 기반 구축, 마지막으로 농촌의 고령화를 극복하고 주민의 안전과 농작물 피해 방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드론 활용 유해 야생동물 포획·관리 기반 시스템 구축'이다.

민간기업 컨소시엄인 (주)한컴인스페이스, (주)삼정솔루션, (주)나르샤, (주)맥에어와 함께 총 3개

분야과제들을 실증하여 올해 11월 말까지 상용화 가능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의성군은 그동안 관·산·학 추진협의체 운영을 통한 드론 산업 육성전략 수립, 국가시설인 드론비행시험센터 준공, 가음면 드론스포츠 센터 운영, 자체 드론 실증사업 추진, 항공산업분야 인재양성 체계구축 등 관련 인프라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이번 실증도시 구축 사업을 마중물 사업으로 해 드론산업을 의성군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향후 선정된 과제와 실증과 상용화를 통해 의성군이 미래 모빌리티 특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영주시농업기술센터, 고구마 우량종묘 무상공급

영주시농업기술센터 작물실증시험장은 오는 29일까지 고구마 조직배양 우량종묘 분양신청을 받는다. 작물실증시험장은 지난해까지 조직배양실, 순화실, 순화온실 구축을 완료하고 올해 총 5만 본의 고구마 조직배양 우량종묘를 생산해 시범적으로 고구마재배 농가에 무상 분양한다.

조직배양 우량종묘는 생장점을 채취하고 바이러스 검정을 거친 후 대량증식하는 방식으로 생산해 일반묘 재배에 비해 생산량이 2-30% 증가하며 품질 또한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고구마 조직배양 우량종묘는 꺾고구마 계열의 소담미로, 단맛이 강하고 식미가 우수하며, 장기간 저장시 내부 공동화가 거의 없는 장점을 가진 우수한 품종이다.

공급되는 종묘 형태가 본밭에 바로 심는 종순이 아니라 15cm내외의 트레이묘이므로, 하우스 시설을 갖추고 있고 공급받은 트레이묘를 일정기간 종순으로 생산할 수 있는 농가는 누구든지 2천주까지 분양 신청할 수 있다.

분양신청은 영주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작물실증시험장에 방문하거나 전화(☎054-639-3846)로 하면 된다. 공급은 오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고구마 조직배양 우량종묘 분양신청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바이오농업팀(☎054-639-3846)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상기 기자

김광호 의성군의회 의장,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김광호 의성군의회 의장이 12일 상주마리앙스 웨딩컨벤션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회장협의회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전국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의욕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헌신 봉사한 의원을 발굴하여 수여하는 상이다.

김 의장은 제9대 전반기 의성군의회 의장으로 발로 뛰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과 군민들 입장을 적극 대변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 공을 인정받았다.

김광호 의장은 "남은 임기 의성군의 지역 발전을 모색하고 더욱 희망찬 의성군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박재성 기자

‘경산형 완전무결돌봄’으로 양육친화 명품도시 만든다

경산시, ‘돌봄’에 진심을 담다
우리아이 CARE 프로젝트 강화
막힘없고 빈틈없는 아동돌봄

경산시는 경산형 완전무결돌봄 정책을 더욱 강화한다.

‘상상 그 이상의 경산! 미래 100년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탄탄한 돌봄 시책으로 양육친화 명품도시로 만든다.

시가 야심차게 준비한 경산형 완전무결돌봄 정책은 ‘우리아이 CARE 프로젝트’는 △원하는 시간, 언제나 아동돌봄의 정보와 기회 제공 △양육가정의 부담없는 가정돌봄 지원 △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돌봄 지원이다.

3가지 정책마다 기발하고 획기적인 세부 돌봄 사업에 담겨 있다.

시는 그동안 실시해 온 돌봄 관련 사업에 ‘우리아이 CARE 프로젝트’에 담긴 정책을 확대 추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양육 환경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원하는 시간, 언제나 아동돌봄

시는 이용자 중심의 ‘경산형 언제나 아동돌봄 통합플랫폼’을 신규 구축한다.

아동돌봄 서비스 제공이 부처별, 부서별로 분산돼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시는 모든 아동돌봄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이 마련되면 사용자들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편의성이 강화되는 등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장난감 도서관도 확충한다.

현재 경산시에서 운영 중인 장난감 도서관은 서부2동 한 곳뿐이다.

시는 연내에 읍면 지역에도 장난감 도서관을 확충함으로써 경산시의 모든 영유아가 고품격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장난감 도서관 확충은 육아비용 경감 및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영유아 돌봄 무한공급 서비스인 365 열린어린이집과 경산형 주말어린이집도 확대한다.

365 열린어린이집은 정규 보육 시간 외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를 위한 야간·휴일 보육 시설이다.

현재 서부1동에 시범 운영 중이며 하반기에 2 곳을 추가 확대한 후, 수요에 따라 2025년 대폭 확대 설치한다.

주말·공휴일 특화 보육서비스인 경산형 주말 어린이집도 수요에 따라 운영하고 2025년까지 권역별로 확충하여 물 썰 틈 없는 보육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시간제 보육 운영도 대폭 늘어난다.

현재 4곳인 이용 기관을 하반기에는 10곳으로 확충해 막힘없는 돌봄정책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 양육가정 부담 없는 가정돌봄 지원

시는 출산가정의 심신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돌봄 지원사업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신생아 유형에 따라 최소 1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무료 이용할 수 있다.

산모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 완전돌봄사업

의 결정적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영유아 및 초등학교 아동들의 돌봄 수요자 역할을 하는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를 통해 경산시 돌봄의 최전선을 단단히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0세(3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1:1로 연계하여 가정방문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용자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특히 경산시가족센터는 2020년부터 3년 연속 아이돌봄서비스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는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시는 사정동과 하양읍에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자녀양육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녀양육 친화센터로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또한 블록·가베놀이, 동화책 읽기 등 자녀 동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장난감 대여 코너도 마련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돌봄

시는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기관인 다함께돌봄센터를 현재 4곳에서 5년 내 12곳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특히 맞벌이 가정 등의 야간 돌봄 고민을 해소하고자 ‘24시 다함께돌봄센터’ 및 ‘24시 지역아동센터’를 각각 1곳씩 지정해 6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모니터링 및 이용자 만족도와 수요에 따라 2025년 확충할 계획이다.

초·중·고생 방과 후 돌봄기관인 지역아동센터 22곳도 내실을 다진다.

시는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아동에게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국내 최고 1:1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블리자 공모사업(AI기반 스마트 학습지원 서비스 구축)에 참여한다.

어린이집을 활용한 방과 후 보육료 지원도 강화하여 차상위 이하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약아동의 돌봄공백에 적극 대응한다. 현재 진량읍과 동부동에 1곳씩 운영 중인 방과 후 어린이집은 수요에 따라 점차 확충할 방침이다.

학교 돌봄 특화사업인 늘봄학교 운영에도 적극 지원을 펼치고 있다.

시는 경산교육지원청과 협업하여 경산형 늘봄학교의 성공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역돌봄과 학교돌봄간의 벽을 허물고,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편하게 돌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중지를 모으고 있다.

올 3월 11개 초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시작한 늘봄학교 시범사업을 하반기에는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희망하는 1학년생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가칭) ‘경산형 아동 언제나 돌봄센터’ 신규 구축도 검토하고 있다.

경북도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완전돌봄특구를 모티브 삼아 돌봄이 필요한 부모와 아동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시는 산업단지 내 근로자들이 걱정 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경산형 아동 언제나 돌봄센터 구축을 위해 산업자원통상부 주관 산업단지 환경조성 공모사업에 전략적으로 도전한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2024년을 돌봄정책 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경산시민의 완전무결돌봄을 위해 원하는 시간 언제나 이용시설과 양육가정 어디서나 안심하고 믿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경산형 완전무결 돌봄 ‘우리아이 CARE 프로젝트’를 빈틈없이 추진할 것”이라 강조하고 “경산을 양육친화 명품도시로 만들어서 아이들을 미래의 인재로 키우고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는 데도 전력을 다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신경운 기자

경산시의회
Gyeongsan City Council

시민이 행복한 경산시!! 경산시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문경 모든 여행을 담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고
자연과 문명이 공존하는
생생한 역사의 보고, 문경
다양한 체험, 볼거리와 더불어
1년 내내 이어지는 축제로
여행의 색다른 재미까지!
문경에 머무는 모든 순간이
잊지 못할 추억이 됩니다.

역사·문화·풍경 속을 걷는
문경 여행의 꽃

문경새재도립공원



932종 동식물의 보금자리
환경부지정 습지보호지역

돌리네습지

국내 최초 문화 생태 영상
복합 테마파크

문경에코월드